

불법의료행위 근절 캠페인

Anti-illegal Medicare Campagin

이 즈음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해서 성형과 피부, 미용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의료행위와 미용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소비자 피해 상담 중에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는 의료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불법적인 다양한 형태의 유사 의료서비스와 의료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 시민의 모임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법의료 근절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운동은 국민들에게 불법의료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불법의료행위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불법의료행위는 무면허에 의한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기술



김 자 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2월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에서는 젊은 여성이 금은방에서 귀를 뚫다가 졸도하여 응급실로 실려 간 사건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접한 원주지부 상담사는 처음에는 금은방에서의 귀를 뚫는 행위가 일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의료법을 찾아보니 미용실, 금은방 등에

서 귀를 뚫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눈썹의 문신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용실에서의 문신행위는 일반적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고객들을 모아놓고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문신용 기계를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진피를 건드려서 염증이 생겨 고발된 사례도 있다.

어르신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면허자에게 치료를 하였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서 애를 먹었다는 상담도 있다. 30대 여성 〇〇씨는 서울 〇〇피부 관리실에서 70만원을 주고 레이저 크리스탈 박피를 받았다. 박피시술 후 얼굴이 붓고 피부 손상이 심해서 피부관리실에 항의했

더니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해서 3개월 정도 그냥 지냈는데 지금은 피부 손상이 더 심하고 얼굴이 울긋불긋 해졌고, 피부과에 가보니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겼다고 한다.

30대 여성 ○○씨는 2005년에 지인의 소개로 보톡스 한 병당 30만원에 1년 동안 3회 놓아주는 조건으로 9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주사를 맞은 후 눈 밑과 입술 주변의 색이 검게 변하고, 울퉁불퉁하게 부어 올라서 소개해준 사람에게 말하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러워 진다고 했는데 더 이상하게 변했다고 한다. 무면허자에게 보톡스나 콜라겐 주사를 맞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이다.

비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체형관리실 단식원에서 다이어트 침 및 초음파 관리 '단식'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70대 남성 ○○씨는 2005년 5월 동네 의료기 체험관에 가서 체험관 직원이 해주는 혈압 등의 몇 가지 기계 검사를 했다. 검사 후 본인이 신경통과 약간의 당뇨가 있다고 했더니, 혈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당뇨와 혈압에 좋은 의료기를 사라고 하였다. 의료기를 사면 체험관에 매일 나와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의료기를 구입했는데, 별 효과도 없고 몸이 더 쑤시고 아프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고 보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모임에 불법의료고발전화(1588-2766)가 개설되면서 의외로 의사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이유는 본인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염증이나 기타 부작용을 경험하여 찾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불법의료행위의 담당자나 현장이 어디

인지는 의사 본인이나 환자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다만 이런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정보성 전화가 대부분이다. 이런 전화를 접하고 보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를 감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는 의료행위인지 미용행위인지, 잘 알지 못하고 현혹되어 불법의료행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대부분이 소개해준 사람과 시술하는 사람이 다르고 시술한 사람의 연락처나 이름 등을 모르고 받게 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더 어렵다. 특히 보톡스나 콜라겐 주입같은 미용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출장을 하여 시술행위를 하는 경우를 보면 마치 피라밋 구조처럼 시술하는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시술받는 사람 등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 시민단체의 활동가들로서는 불법시술현장을 잡을 길이 없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며, 의료인 또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미용실에서의 귀 뚫기와 문신이 불법이라면 어디에서 시술을 해야 하는지, 노인들이 의치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무면허 치과과사에게 가서 의치를 한다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불법의료행위의 실태와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 이제是大안을 내놓을 시점이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면허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를 불법이라고 하지만 더불어 자격증 있는 의사들의 부적합한 의료행위는 어찌할 것인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㉔

E-mail : jhkim6194@hanmail.net